

## 아주대 경인통일교육센터, 메타버스 기반 통일교육 점핑·미로맵 개발

양휘모 기자 | 승인 2022.01.10 19:29



아주대 경인통일교육센터가 제페토에 오픈한 'DMZ 너머 백두산까지' 점핑·미로맵 서비스

아주대학교 경인통일교육센터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 점핑·미로맵 서비스를 개발했다.

10일 아주대학교 경인통일교육센터(이하 센터)에 따르면 센터는 메타버스(주)와 함께 지난해 12월31일 '네이버Z'의 메타버스(가상현실) 플랫폼인 제페토에 'DMZ 너머 백두산까지'라는 맵을 오픈했다.

유저들은 판문점, DMZ공원, 옥류관 등 북한의 주요 장소를 방문해 북한 음식을 체험하고 게임과 퀴즈를 풀면서 백두산까지 도달할 수 있다.

전 세계 2억명이 사용하는 가상 세계 플랫폼 제페토는 전체 유저의 80%가 10대일 만

큼 10~20대의 선호도가 높다. 이에 센터는 제페토를 기반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평화 및 통일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맵을 제작했다.

한기호 센터 사무처장은 "이번 맵을 통해 MZ세대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분단의 한계를 극복했으면 한다"고 말했다.

양휘모기자

저작권자 ©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양휘모 기자